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 선고 가능

양형위, 아동학대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학대살해죄, 최대 징역 20년 또는 무기 이상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전망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징역 17~22년을 기준으로 감경되면 12~18년이지만, 가중처벌 시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급전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살인인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 범위를 기초로 각각 2년씩 상향해 아동학대살해죄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에 해당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 살인 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기준도 뒀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모두 상향됐다. 기본 4~7년에서 4~8년까지 늘었으며,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6~10년에서 7~15년으로 높아졌다.

특히 가중처벌할 만한 사정이 형을 줄여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이다. 아동매매는 ▲6개월~2년 ▲1~3년 ▲2년6개월~6년이다.

또 아동의 신체·정신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하면 가중처벌될 경우 1~2년에서 1년2개월~3년6개월로 상향됐다.

가중처벌이나 형을 감경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도 정비됐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피해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의 경우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으면 감경받았다는 사회 인식을 고려,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전과가 있다면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해 가중처벌한다. 일반감경인자 가운데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해 충실한 양형심리도 유도한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고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기 위해선 '과거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질렀으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마련된다. 만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상습 학대 범행을 했다면 감경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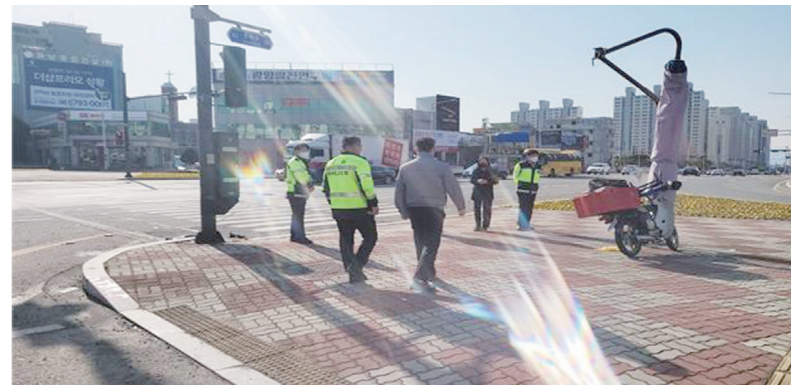
6세 미만이나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도 일반감경인자로 새롭게 포함됐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원칙도 최종 의결했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개별 범죄군별로 기준을 마련하되, 즉결심판·약식명령 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초로 벌금형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것은 교통범죄가 될 전망이다.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서 양형실무를 축적한 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유우나기자**



광양경찰, 시설 개선 권역별 합동진단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최근 광양시 중동 중마시장 앞 교차로, 금호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상습정체구간 등에 대하여 합동진단을 실시하였다. **광양=심종섭기자**



나주경찰, 낙석 등 위험개소 유관기관 합동점검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해빙기 급경사지 낙석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나주시 봉황면에 위치한 우치재 인근 야산 등 관내 급경사지 위험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경찰, 치매노인 발견에 기여한 민간인 감사장 전달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29일 오전, 치매저서로 실종한 80대 노인을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기여한 강진군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순천경찰, 시뮬레이션 사격장 개소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최근 순천경찰서 지하 사격장에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개소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남부소방, 작은 배려 큰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전통시장(무등시장·봉선시장)에 대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우리나라 4대 매화'백양사 고불매, 꽃망울 터트리

국립공립원단 내장산국립공원백양사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우리나라 4대 매화이자 흥해화로는 유일한 백양사 고불매(古佛梅)가 활짝 꽃망울을 터트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장애인 이동·교육·탈시설권 권리보장 촉구"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29일 오전 광주 서구 국회의원회관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당 대표가 서울 지하철 역에서 이동·교육·탈시설권 권리보장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를 비판한 것을 규탄하며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편의점서 위조 신분증 빼앗기자 알바생에 병으로 위협한 10대

한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을 빼앗긴 한 미성년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퍼붓고 와인병으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위조 주민등록증 빼앗다가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저번에도 나한테 민증 빼앗겼던 고등학생인데 한참 지나서 또 걸렸다"라며 "바로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내놓으라고 난동 피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와인병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A씨는 "3번 밀쳐지고 와인병으로 머리 깨버린다는 위협까지 받았다"라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A씨가 첨부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미성년자 남성이 계산대 안에 들어와 "(신분증) 달라고요. 시X", "어쩌라고요. 시X", "X말 X말 어떡하지는 거야"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A씨가 "폭력이다. 진정 좀 해라", "경찰 통해 (신분증) 확인하겠다"라고 말하자 미성년자 남성은 계속해서 욕을 내뱉으며 가져간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이때 편의점을 방문한 한 손님이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는 듯 "경찰 신고하셨나, 딱 봐도 미성년자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손님도 "너 몇 살이냐"라고 거들었다.

A씨는 손님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잠깐만 가서 달라"라고 요청했고 손님도 "알겠다"라며 A씨를 도왔다.

상황이 일단락된 뒤 A씨는 "경찰 와서 진술서 쓰고 CCTV 영상 보냈다. 경찰 왔는데도 냉정고를 손으로 내려치더라. 결국 경찰서에 어머니 소환됐다고 들었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상황 대처를 잘 해서 다행이다", "초법소년이어서 처벌도 약할 것 같다", "한 번 걸려놓고 또 오는 건 무슨 용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남진기자**

'우세종' 스텔스 오미크론...새 변이·재감염 우려

델타, 오미크론 이어 스텔스 변이도 우세종 재감염 346명...16.2%는 최근 10일내 발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 하위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재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가 변이 발생으로 인한 유행 재확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이자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의 국내 검출률이 56.3%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검출률이 50%가 넘어가면 우세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S계통, V계통, L계통, G계통 등 새로운 변이가 줄곧 출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변이 바이러스 명명 체계를 변경한 이후에도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등의 변이가 등장했다.

특히 델타의 경우 지난해 중순부터 우세종이 된 이후 국내 유행을

주도했으며 오미크론 변이는 올해 대유행으로 확산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 등장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이후에도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방대본 집계를 보면 죽은 바이러스가 남아서 검출되는 '재양성'이 아닌 재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총 346건이다. 이 중 지난해까지 파악된 재감염 사례가 161건이고 나머지 185건이 올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확인된 재감염 사례가 전체의 16.2%에 달하는 5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질이 불안정한 RNA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잦은데, 앞으로도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대한백신학회 온라인학술대회에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매일

평균 30%"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크리스 윌리 박사도 "2년 내에 오미크론보다 더 나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기간 경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이 겹치면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호주 등은 지난 1~2월에 유행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1~2주 다시 역대 최대 확진자가 나오는 재유행에 직면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먼저 오미크론 유행을 겪었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최근 2~3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또 다른 유행에 대비해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변이와 유행의 대비는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며 "항체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면역력 수준을 파악하고 치료제도 필요하면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